

지역의 내발적 발전 연구 역량 한데 모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13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2011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충남도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부 순서에서는 올해 추진된 20건의 전략과제 중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과 연계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6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후 2부에는 연구원 내외에서 제안된 총 9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을 대상으로 내년도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는 ▲지방행정 ▲지역도시 ▲지역경제 ▲농촌농업 ▲문화디자인 ▲환경생태 등의 분야별 전문심의회위원을 위촉하여 충발연 연구진과의 과제별 종합토론을 거쳐 전략과제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충발연 관계자는 “내년도 전략과제는 12월 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비록 심사에서 탈락한 과제라 할지라도 연구성격에 따라 현안과제, 수탁과제, 연구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의 전략과제가 도 및 시·군정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내발적발전 모색 위해 아시아 4개국이 한 자리에

- 충남발전연구, '내발적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 국제심포지엄

지역의 내발적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8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화의 물결속에 불어닥친 양극화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못한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일본 동경농공



농업·농촌·농민문제 함께 풀어보자

- 11월 18일, 충남발전연구원·지역
재단·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합
동워크숍 개최

대학 센가 유타로 교수의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내발적 발전”, 중국인민대학교 왕지강 교수의 “지역재개발(CRR)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방법 연구”, 필리핀 마닐라대학교 저멜리노 M. 바티스타 교수의 “필리핀 농업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연구실장, 공주대 정환영 교수, 중도일보 조성남 주필, 서울대 최영찬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의 올바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세계화에 밀려 있는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내발적발전을 제시하고, 각국의 정책현황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해 관련정책연구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재단,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의 길”이란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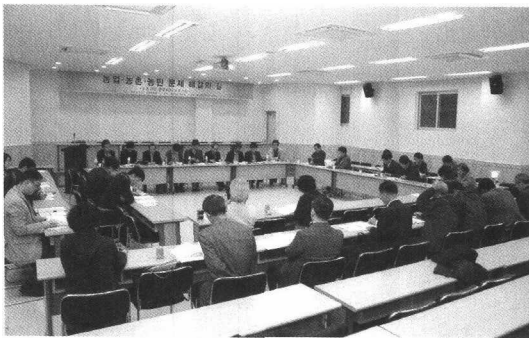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청양군 칠갑산휴양림에 모인 60명의 연구진과 현장활동가들은 한국 농업·농촌·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책 마련과 실천을 강조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기초강연에서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의 쇠퇴는 삶의 공간인 지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지역의 문제를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인식, 자율과 협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지역특화·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지역문화 기반의 소프트파워 강화 ▲지역리더 양성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도 및 시·군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농업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협동

과 연대가 관건”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는 농업·농촌을 생명의 기초이고 원천이며,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 공간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나, 오늘날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공적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와 기능, 공공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생산, 식품소비,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농업·농촌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진행으로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로컬푸드·공공급식과 대안 먹거리 운동 ▲당면 총·

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현 단계 농민운동의 과제와 실천대안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리더 양성 과제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한 발표와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충남발전연구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수도권 기업유치 등 국토균형발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객관적 평가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예방과 상생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그리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11월 2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와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와 대응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11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과 중부대 강현수 교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 치유 및 상생협력 방안” 주제발표

가 있었다.

이어 정낙형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 목원대 박경 교수, 세종대 변창흠 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은파 부장, 국회 이창호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현.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밀·과소의 폐단과 비경제성을 증가시키며,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간 추진되어 온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 간 차별화를 도모하는 시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 정책 논리의 바람직한 판단기준은 단기적인 정책목적이나 특정집단·지역의 이해보다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6일에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기조강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시작으로,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평가와 개선 과제”, 정준호 강원대 교수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익 추정”, 그리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수상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김홍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변용환 한림대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쳤다.